

설교제목: “족한 은혜”

설교본문: 창세기 45 장 28 절

먼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있기를 기원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만날 때, 하나님의 평안을 빌면서 샬롬! 하며 인사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하는 샬롬이란 말과 같은 말이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

우리의 인사 안녕하세요는 밤새 혹은 그 동안 평안했느냐 하는 말이다. 다시 말해 나를 만나기 전까지 별일 없이 잘 있었느냐 라는 뜻이다.

험악한 세상살이에서 별고 없이 잘 지냈느냐 라는 말이다. 특히 나쁜 일은 밤에 많이 생기는데, 지난 밤 별일 없었느냐 라는 뜻이다.

반면 이스라엘의 인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냐 라는 말과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너의 평안을 빈다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내가 애써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움으로만 평안한데, 하나님이 너를 평안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셨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평안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샬롬! 인사를 하자!

혹 한국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인사했던 의미를 담아 우리 신앙인들을 인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면 우리 식으로 평안하세요 라고 묻고 헤어질 때,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라고 말해도 기독교인 티 안내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인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신다.

마태복음

10:12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10:13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요한복음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로마서

8: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셨다.

우리는 평안하기를 바란다.

또 평안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평안을 바라지만 언제나 평안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삶에 평안이 깨지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며, 우리 죄 배후의 악한 영의 역사 사단 때문에 그렇다.

더 나아가 차원을 높여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잠시 평안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이기도 하다.

죄 때문에 평안이 없거나 혹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잠시 평안 없는 곳으로 인도하실 때 평안이 없다.

죄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것은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은혜를 받을 때 사라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잠시 평안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아무나 이런 경우, 이런 시험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다.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다시 찾고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택함을 받아 이와 같은 은혜를 받게 된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이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등이 그런 인물이다.

이들은 평안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지키고 평안을 끼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평안 없는 고난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또 고난 받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부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여 잠시 평안을 빼앗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

산 채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워진 예녹이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같은 분들은 이 세상에서 특별한 사연, 이야기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선택받은 평안을 잃은 사람들도 있다.

그런 성경의 인물 중 한 분이 야곱이다.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둘째 아들로 평안히 살려면 문제없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삭의 큰 아들 에서가 세상 사람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는 아버지를 이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고난의 삶을 택하였던 것이다.

그는 형 에서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후,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나오게 된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여 탈출하여 나온 것이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하는 신세가 되는데, 거기서도 욕심쟁이 라반이 거둬야 곱을 속이고 야곱에게 약속한 재산을 주지 않고 수년간 일만 시키는 억울한 일을 당한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두 딸들을 거의 억지로 억울하게 아내들로 맞이하게 된다.

겨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탈출하여 자기 형에게 찾아가 화해한 후, 야곱은 이번에는 자식들 때문에 평안 없는 삶을 살게 된다.

12 아들과 1 명의 딸을 둔 야곱은 광야에서 가축 떼를 몰며 살았는데, 아들들이 형편없는 삶을 살았다. 광야에서 유명한 깡패들로 그 이름을 떨쳤다. 그래서 아버지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특히 야곱은 그 아들들 중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고 위했는데, 그 이유는 본래 자기가 결혼하고자 했던 여인은 라헬이었다. 그 라헬의 아들이었고 또 라헬은 두 아들만 낳았는데, 둘째를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다. 그런 이유로 야곱은 슬픔 가운데 위로로 요셉을 사랑하였다.

그런데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이 속된 말로 이 꼴을 못 보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셉을 몰래 유인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야곱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는 사나운 짐승이 요셉을 물어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빠지게 된다. 그의 슬픔과 고통을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 아버지의 슬픔과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던 야곱의 아들들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망나니 생활을 하다가 그런 삶을 버리고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아들이 변하게 것이다.

그럼에도 아버지 야곱은 슬픔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모습을 보는 아들들은 죄의식 가운데 더욱 아버지에게 요셉을 대신해서 위로자가 되고자 하였던 것이다.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도망 나와 천하에 고아 같은 자가 되었을 때도 신앙으로 견뎠다. 외삼촌이 자기를 노예처럼 부려먹으며 야곱의 것을 조금도 주지 않았어도 그는 신앙으로 견뎠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어도 너무나 슬펐지만 그는 신앙으로 견뎠다. 그러나 요셉이 죽었다고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신앙을 잃지는 않았지만 평안을 잃어버린 하나님인 것이다.

아무리 다른 아들들이 요셉의 분신이 되어 아버지를 위로하고자 했어도 그는 평안을 찾을 수 없었다. 신앙도 그에게 평안을 찾아 주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출발한 야곱은 평안을 빼앗아 버리는 환경 속을 거둬거둬 걸어갔지만 하나님을 믿었기에 평안했는데, 요셉을 잃은 후, 그 평안마저 이제는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평안을 빼앗아 버리신 잔인한 하나님처럼 보인다. 어찌 그러할 수 있으신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후의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야곱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높이고 또 높이시기 위해 잠시 고난 속에 야곱을 두셨을 뿐이다. 또 그만한 믿음이 야곱에게 있음을 하나

님은 아시고 확신하셨기에 잠시 야곱에게서 평안을 빼앗아 가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10: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본문말씀이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야곱의 아들 요셉은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의 왕 다음 2인자인 국무총리까지 된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과 그 주변에 임할 재앙을 미리 예견하였고 또 그 대비책을 제시하여 왕의 신임을 얻었던 것이다.

중동지역과 아프리카 북부 전역이 심한 기근으로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다 고갈되게 되었다. 가나안 땅에 거했던 야곱의 가족들도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중간 생략하고 오늘 본문말씀에서 드디어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여전히 살아있는 아들 요셉, 더구나 애굽의 제 2인자가 된 아들을 만나게 된다. 45:28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으로 하나님이 새로 주신 이름이다. 본래 야곱이란 말은 사기꾼이란 말인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뜻의 이름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새로 주셨다.

이스라엘은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외쳤다.

족하도다.

하나님은 역시 좋으신 하나님이셨다. 자기 아들 요셉을 살아 있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이셨다. 그의 평생 평안이 없는 삶 속을 걸었고 또 평안을 완전히 빼앗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셨다.

족하도다 라고 외치는 야곱의 평안을 느껴보자.

아마 이 세상 살았던 그 어떤 이도 이런 만족, 이런 평안을 느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지금 누리고 있다.

야곱의 평안을 그 일생에서 잠시 빼앗았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데로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늘어나게 하시기 위해 야곱에게 많은 가족을 주시고 또 가족을 넘어 민족이 되고, 민족을 넘어 세계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놀라운 섭리로 역사하신 것이다.

애굽 땅 고센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은 종들 포함 50명이었는데, 그 땅에서 나올 때는 민족이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

혹 알 수 없는 고난, 고통 속에 있더라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끝까지 좋으신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넘치고 넘치게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모르는 일 투성이다.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환난 그 때부터 절망하고 절망으로 끝낸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같이 절망하고 힘들어하지만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리고 기어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속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족한 은혜를 넘치고 넘치게 주심을 믿자.